

노인부양가족을 위한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기초연구* : 부양자 요구를 중심으로

A Study on Family Life Education Programs for Caregiving Families

서울대학교 소비자·아동학과
교수 옥 선 화
서울대학교 소비자·아동학과
강사 이 형 실
한남대학교 가정교육과
강사 이 춘 희

Dept. of Consumer & Child Studies, Seoul National Univ.

Professor : Sun Wha Ok

Dept. of Consumer & Child Studies, Seoul National Univ.

Lecturer : Hyong Sil Lee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Han-Nam Univ.

Lecturer : Choon Hee Lee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 II. 관련연구 고찰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 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is study was to provide the basis for the development of family life education programs for caregiving familie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374 adult children who were giving care to their older parents in Seoul.

Adult children reported experiencing more caregiving problems in the areas of personalities of older parents, psychological burden, and parents' health than in the areas of caregiver's health and financial burden. Women were more likely to experience caregiving problems than men. Adult children indicated higher levels of

* 본 연구는 1993년도 서울대학교 대학발전기금 대우학술연구비에 의해 지원되었음.

perceived knowledge on planning for later lif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older parents, and keeping good relationships with older parents. They reported more need for knowledge on physical change of older parents and planning for later life, while there were less need for knowledge on sharing caregiving roles with others and social service programs. The needs for caregiving education were also identified in the aspects as to participation, purposes, methods, times, and agencies.

Given these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some practical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family life education programs for caregiving families. Further studies should help to advance the development and practice of family life education programs for caregiving families.

I. 서론

최근 가족생활교육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가족생활교육은 개인과 가족의 상호관계를 발전시키고 가족생활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며 가족원들의 질적인 삶을 개선시킬 잠재력을 일깨워 주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가족생활교육은 가족생활 전 주기를 통해서 계획적이고 실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즉, 가족생활 각 단계와 배경에 따라 그 발달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가족생활교육이 제공될 수 있다(유영주·오윤자, 1990).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노인 인구의 증가로 그 어느 때보다도 가족의 노인부양 역할이 더욱 더 중요해지고 있고 또한 가족이 노인부양의 일차적인 책임을 맡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노인부양은 전통적인 가족구조에서의 노인부양과는 본질적으로 그 성격이 다르다.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른 가치관의 변화와 가족구조의 변화로 노인부양의식과 행동이 약화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노인부양에 따른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대 뿐만 아니라 노인중 아주 연령이 높은 노인층이 증가하기 때문에 노인의 건강 악화시 이에 따르는 노인부양의 부담은 훨씬 더 커지게 된다.

또한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성인자녀의 입장에서 보면 성인자녀는 자신의 노부모를 부양하는 책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 즉 배우자나 자녀를 보살피는 책임도 맡고 있으며 많은 경우에 자신의 직업생

활도 병행하게 된다. 노인부양자의 이러한 다중역할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며 부양자의 긴장과 스트레스를 가중시킨다. 따라서 노인부양가족에서는 다양한 가족역할 수행에 따르는 어려움이 있으며 이와 관련된 가족문제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가족에 의한 노인부양은 앞으로도 계속 그 중요성이 강조될 것이므로, 성인자녀의 노인부양 경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요구되며 또한 노인부양가족을 위해 여러가지 실제적인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 즉, 노인부양가족의 부양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노인부양가족으로 하여금 노인에게 보다 나은 부양을 제공하도록 하며, 가족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정보와 지식 및 다양한 도움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에 따라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가족을 위한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노인부양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의 시도는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부모 부양자가 현재의 부양상황에서 경험하는 여러가지 어려움, 노부모 부양에 관한 지식 및 정보와 이에 대한 필요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노인부양가족을 위한 교육에 대한 부양자의 요구를 조사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노인부양가족을 위한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관련연구 고찰

1. 가족생활교육

현대사회의 급속한 변화는 가족생활에도 큰 영향을 주어 가족의 기능과 구조, 가치관등이 변하고 있다. 가족이 급속한 사회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가족문제와 갈등이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가족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가족문제를 예방적 차원에서 가족이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족생활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가족생활교육은 가족생활을 향상시키며 가족문제 및 가족에서 파생되는 사회문제를 감소시키는 기능을 한다.

미국 가족생활교육위원회(National Commission of Family Life Education)에서는 가족생활교육의 목적에 대해, 개인과 가족의 상호관계를 발전시키고 그들의 질적인 삶을 개선시킬 잠재력을 일깨워 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학자의 연구에 기초한 가족생활교육에 대한 자료의 발달 뿐 아니라, 학교나 교회, 기타 사회제도기관에서의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 발달이 시급하다고 제시하였다.

가족생활교육에 속한 영역에는 인간발달과 성, 대인관계, 가족상호작용, 가족자원관리, 부모됨에 대한 교육, 윤리, 가족과 사회, 가족 의사소통과정, 의사결정, 문제해결 등이 있다. 가족생활교육이란 전체 가족단위를 중심으로 정상적인 가족발달 및 가족문제 예방을 촉진하는데 있으므로 치료적 또는 교정적인 것과는 다른 것이다(Cromwell & Thomas, 1976).

현재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은 일반 사회교육 프로그램 속에 포함되어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및 사회교육원, 종교 및 사회단체기관, 가족문제나 상담연구소 등에서 부분적인 내용만이 실시되고 있으며 아직 가족생활교육으로서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이며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거의 발달되지 않았다(오윤자·유영주, 1992).

우리나라에서도 가족생활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하고 가족원들의 가족생활교육에 대한 인식과 교육요구를 파악하려는 시도가 있다. 유영주와 오윤자(1990)의 연구에 의하면, 연구의 조사대상인 서

울시 기혼남녀들이 가족생활을 영위해 오면서 가족생활교육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으며, 특히 부부문제에 있어서의 교육내용인 의사소통, 역할협력, 부부간의 정신건강, 성격차이, 취미, 종교, 가치관의 차이, 애정표현 등에 관한 구체적이고도 전문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생활교육은 인간발달단계와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교육이 계획적이고 실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은 전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겠으나, 우선 가족생활주기의 특정단계 또는 구체적인 문제에 직면한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부터 시작하는 것도 효과적이라 하겠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노인부양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가족을 위한 가족생활교육에 초점을 두었다.

2. 노인부양문제

많은 연구들이 성인자녀에게 있어서 부모에 대한 강한 효의식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고(서병숙, 1989; 옥선화, 1989), 전체 노인중에서 자녀중 장남부부와 동거하는 노인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태현, 1981). 그러나, 노후생활에 대한 책임은 노인 자신 또는 국가나 사회의 책임이고 자녀의 책임이 아니라는 의식도 상당히 증가해 부모부양의식이 점점 감퇴되고 있기도 하다(우미경·서병숙, 1989). 즉, 가족구조나 가치관 및 생활양식의 변화로 인하여 노부모에 대한 부양행동이나 태도가 약화되고 있으며(조병은·신화용, 1992), 그리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규범의 부재는 심각한 갈등과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신효식·서병숙, 1992).

한편, 아직도 가족은 노인부양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노인부양은 가족들이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되고 있다(Brody, 1985). 노인부양은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가족원들의 스트레스를 야기시키며 (George & Gwyther, 1986; Poulshock & Deimling, 1984), 노인 부양자들은 부양 스트레스

로 인한 여러가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어려움을 경험한다. 즉, 노인부양은 부양자의 건강쇠퇴, 심리적 부담 증가, 사회적 또는 개인적 활동 및 여가 감소 같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노부모에게 적절한 부양을 제공하는 것이 자녀들의 중요한 책임으로 사회가 규정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녀들이 노부모의 다양한 요구에 반응하는데서 여러가지 어려움도 경험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Allan, 1988). 따라서 노부모 부양에 따른 어려움, 긴장 및 부담을 완화시키는데 필요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조병은과 신화용(1992)은 자녀세대에 대한 일방적인 효사상의 고취보다는 자녀가 노부모와의 관계로부터 느끼는 보상을 증가시키거나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성인자녀나 노부모를 대상으로 가족관계의 변화나 노화과정에 대한 교육을 시키거나, 또는 성인자녀와 노부모가 새로운 관계 규범을 설정할 수 있도록 대화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였다.

노부모 부양에서 오는 부양요구나 스트레스가 클 경우, 부양자와 노인간 친밀감이 낮아질 수 있다(Cantor, 1983). 또한 노부모와 성인자녀간 관계는 부양의 질적인 측면과 성인자녀가 노부모 부양을 계속할 것인가에 영향을 미친다(Litwak, 1985). 노부모에 대해 느끼는 친밀감은 성인자녀에게 있어서 노부모를 부양하도록 하는 중요한 동기 중의 하나이다(Horowitz & Shindelman, 1983). 실제로 현재의 노부모 부양행동에 어머니와의 갈등과 자녀의 애착행동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송현애·김순옥, 1990). 즉, 부양으로 인한 어려움이나 스트레스가 심하면, 노인과의 관계도 악화되며 따라서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성인자녀 자신및 가족뿐만 아니라 부양을 받고 있는 노인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노부모와의 좋은 관계와 노부모에 대한 더 나은 이해는 부양자가 부양상황에서 경험하는 부담이나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인부양 문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증가하고 있으나, 가족생활교육의 측면에서 이 문제에 직면한 가족의 구체적인 요구에 대한 파악과

더불어 노인부양 가족들을 어떻게 도와주고 교육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연구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3. 노인부양가족을 위한 가족생활교육

국내외적으로 볼 때 노인부양가족을 위한 가족생활교육에 관한 연구는 드물며, 현재 체계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몇몇 연구자들이 제시하는 노인부양 문제에 대한 개입 방법을 통해, 노인부양가족을 위한 가족생활교육은 다음의 몇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Kaplan, 1979).

(1) 집단교육

노부모를 부양하는 성인자녀에게 노화과정의 신체적, 심리사회적 측면에 대한 지식을 주로 제공한다. 연령에 따른 변화는 정상적이라는 것을 인식시키며 또한 질병으로 인한 변화에 관한 정보를 제시한다. 그리고 부양자와 노부모의 욕구에 대한 논의와, 이용가능한 서비스와 자원에 대한 정보 제공은 부양자녀와 노부모 모두에게 도움을 준다. 이는 성인자녀와 노부모 모두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

(2) 지지집단

지지집단(support group)은 노부모 부양자들이 노부모 부양이라는 같은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다른 부양자들과 함께 노부모 부양을 위한 적응에 대한 여러가지 관심사를 논의하며 노부모의 연로함에 대처하는 방법을 서로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다. 부양자녀가 자신의 개인적 기대와 더불어 노부모의 기대, 그리고 배우자와 자녀의 기대를 모두 충족시키려는데서 생기는 죄책감, 좌절감, 갈등같은 감정을 발산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지지집단 성원들은 모임이 끝난 후에도 서로 관계를 지속하며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다.

(3) 세대간 가족모임

세대간 가족모임은 노부모와 부양자녀간 대화를

하는데 초점을 둔다. 주로 효에 근거한 부모자녀관계의 책임, 이전에 해결되지 않은 부모자녀간 갈등, 형제간 경쟁 같은 문제를 다루게 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화는 분노감이나 적대감 같은 부정적 감정을 해소시킴으로써, 부양에 대한 노부모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자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노인부양가족을 도와준다. 그리고 노부모와 성인자녀의 현실적 기대가 탐색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 세가지 유형이외에 집단교육과 지지집단의 형태를 합한 유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노부모 부양자를 대상으로 노년기의 변화과정, 노부모와 부양자의 기대, 이용가능한 지역사회 서비스와 자원에 대한 교육과 정보를 제공함과 더불어, 부양상황에서 경험하는 어려움, 갈등, 대처방법 등에 대해 토론을 함으로써 감정을 발산하는 기회와 부양자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도움을 서로 주고 받는 기회를 함께 제공할 수 있다.

이밖에, 노인부양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은 다양한 이론적 근거에 의해서 교육의 초점 및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노인부양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에 관한 선행연구로서는 Schalach(1990)의 연구가 있다. Schalach(1990)은 혼자된 노모가 있는 딸 30명을 대상으로 딸의 부양 긴장감을 감소시키기 위해 두가지 접근방법을 사용한 결과를 비교하였다. 먼저, 인지적 접근은 딸의 노모 부양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를 수정하고, 딸의 정서적 만족과 노모의 독립성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지지적 접근은 노년기에 경험하는 신체적, 사회적, 지위상실 문제를 논의하며, 노모의 욕구에 더 민감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반응하도록 하는 정서적 지지를 제공한다.

이 두가지 접근을 통한 결과를 비교해 보았을 때, 인지적 접근이 지지적 접근보다 딸의 부담감과 노모의 고독감 감소, 모녀관계의 질 개선에 더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딸의 자녀로서의 노모 부양에 대한 비현실적인 태도를 수정하도록 돕는 것은 경쟁적 역할긴장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게 한다. 노모 자신의 독립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딸을 좌절시키고 노모의 심리적 복지를 저해하는 불필요한 의존성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딸

의 부담감이 노모와 딸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해함으로써, 딸의 자녀로서의 책임감과 행동을 변화시켜 부담감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족생활교육은 가족생활에 대한 가족의 요구에 부응하여 가족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가족이 가족생활에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가족문제를 미리 예방할 수 있다. 특히 노인부양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생활교육을 통해, 노인부양가족의 부양에 따른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그들의 가족관계를 향상시키며 노인에게 더 나은 부양을 제공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부양가족을 위한 가족생활교육에 대한 현황과 노인부양의 문제점 및 교육요구 조사를 바탕으로 노인부양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노인부양가족을 위한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기초를 마련함으로써 각 단체나 교육현장 또는 가족문제 상담현장에서 요구되는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노인부양가족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부양자와 노부모 양쪽 모두를 고려하여야 하나, 본 연구에서는 부양자만을 포함하여 그 범위를 제한하였음을 밝힌다.

Ⅲ. 연구 방법

1. 조사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서울시에 거주하며, 현재 65세 이상의 노부모를 부양하는 성인자녀였다. 적어도 1년이상 노부모를 부양한 기혼자녀만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40명의 성인자녀에 대한 예비조사를 거쳐 질문지를 수정, 보완한 후 본조사는 1993년 6월 1일부터 7월 16일까지 500명의 노인 부양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 부적합한 자료를 제외하였으며, 사위가 조사대상자인 경우는 매우 적었기

때문에 아들, 며느리, 딸의 자료만을 포함하여, 총 374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38%가 남성, 그리고 62%가 여성이었으며, 거의 대부분이 현재 배우자가 있었다(97%). 부양자 관계를 살펴보면 아들이 38%, 며느리가 49%, 딸이 13%로 나타나, 친부모를 부양하는 비율이 시부모를 부양하는 경우와 거의 비슷하였다. 평균연령은 43.8

세이고, 연령별로 보면 30대가 27%, 40대가 53%, 50대가 18%, 그리고 60세 이상이 2%였다. 조사대상자의 59%가 취업을 하고 있었으며, 배우자가 취업을 하고 있는 경우도 73%였다. 교육수준을 보면 고졸이 전체의 39%를 차지하였으며, 대졸이상도 36%로 교육수준이 높은 편이다. 또한 월 평균소득도 207만원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조사대상자가 부양하고 있는 노부모의 평균연령은

〈표 1〉 부양에 따른 어려움 (성별)

하 위 영역	부양자 성별				노부모 성별			
	집단	평균	표준편차	t	집단	평균	표준편차	t
심리적 부담	남	2.60	1.12	7.31***	남	3.34	1.18	2.02*
	여	3.47	1.14		여	3.06	1.21	
경제적 부담	남	2.06	.95	-5.47***	남	2.49	1.18	.52
	여	2.68	1.12		여	2.42	1.07	
죄책감	남	2.81	1.00	-1.48	남	2.85	.96	.63
	여	2.97	.95		여	2.93	.98	
형제나 친척의 도움부족	남	2.55	1.21	-3.51**	남	2.92	1.25	.87
	여	3.01	1.25		여	2.80	1.25	
노부모의 건강문제	남	2.81	.98	-1.71	남	2.95	1.41	.21
	여	3.01	1.14		여	2.93	1.07	
노부모의 성격문제	남	2.85	1.13	-3.99***	남	3.11	1.29	.52
	여	3.35	1.19		여	3.18	1.15	
노부모와의 갈등	남	2.53	1.09	-3.64***	남	2.82	1.25	.26
	여	2.96	1.10		여	2.78	1.05	
노부모 이해	남	2.68	.88	-2.76**	남	2.88	.90	.47
	여	2.95	.96		여	2.83	.95	
주거공간 부족	남	2.60	1.24	-2.31*	남	2.85	1.28	.52
	여	2.92	1.30		여	2.77	1.29	
나자신의 건강문제	남	1.81	.86	-8.22***	남	2.47	1.26	.67
	여	2.78	1.23		여	2.38	1.17	
나자신의 시간과 여가	남	1.99	.94	-7.45***	남	2.79	1.27	2.25*
	여	2.91	1.29		여	2.46	1.23	
가사역할의 과다	남	2.08	.97	-6.74***	남	2.77	1.31	1.88
	여	2.89	1.24		여	2.51	1.16	
가족단란시간 부족	남	2.26	1.03	-5.63***	남	2.83	1.28	1.33
	여	2.96	1.25		여	2.64	1.19	
배우자·자녀와의 관계문제	남	2.28	1.00	-5.19***	남	2.77	1.24	.94
	여	2.92	1.26		여	2.64	1.19	

* P < .05 ** P < .01 *** P < .001

74.9세이고, 60대가 19%, 70대가 58%, 80대가 22%, 90대가 1%를 차지하였다. 평균 노부모 부양기간은 13.5년이었으며, 노부모의 성별을 볼 때 남자 노인을 모시고 사는 경우가 28%, 여자 노인을 모시고 사는 경우는 72%였다. 노부모의 건강상태는 건강한 편이 58.6%, 좋지 못한 편이 41.4%로 나타났다.

2. 조사도구

본 연구를 위하여 사용된 질문지는 노부모 부양에서 오는 어려움, 부양지식 및 정보, 부양지식 및 정보에 대한 필요성, 노인부양을 위한 교육요구, 그리고 인구학적 특성을 측정하는 문항들로 이루어졌다.

노부모 부양에서 오는 어려움은 노부모 부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총 14문제에 대해 부양자가 경험하는 어려움의 정도를 조사하는 문항으로 측정하였고, 각각의 문제는 1(전혀 문제가 없다)에서 5(매우 어렵다)까지의 범위를 갖는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노부모 부양에 대한 지식 및 정보, 그리고 이에 대한 필요성은 각각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노인부양을 위한 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영역에 관한 문항들로, 1점(전혀 모른다 또는 전혀 필요하지 않다)부터 5점(매우 잘 안다 또는 매우 필요하다)까지의 응답 범주를 갖는다.

노인부양을 위한 가족생활교육 요구에 관한 문항은 교육의 필요성, 목적, 참석, 교육방법, 담당기관, 실시시간 등을 조사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IV. 연구 결과 및 해석

1. 노부모 부양에 따른 어려움

노인부양교육을 위해서는 먼저 노인부양자가 노부모를 부양하는데서 경험하는 실제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부모 부양에 따른 어려움의 영역별 평균점수를 보면, 노부모의 성격문제가 3.16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부양의 심리적 부담(3.14점), 노부모의 건강문제(2.93점) 순이었다. 가장 낮은 평균점수를 보인 것은 나 자신의 건

강문제(2.40점)였고 그 다음이 부양의 경제적 부담(2.44점)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볼 때, 노부모 부양자들은 대체로 노부모와 직접 관련된 문제 및 부양 역할부담과 도움부족에서 오는 어려움을 비교적 많이 경험하고 있으나, 부양이 부양자 자신과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어려움은 적게 느끼는 것을 알 수 있다.

노부모의 성별로 보았을 때 부양 어려움 중 심리적 부담과 자신의 시간 부족문제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표 1). 부양하고 있는 노부모가 남자일 경우 여자일 경우보다, 노부모 부양자는 심리적 부담과 자신만의 시간 부족에서 오는 어려움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피부양자가 남자일 경우 부양자의 부양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난다는 선행연구(이영자·김태현, 1992)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이같이 부양자 자신의 시간부족에서 오는 어려움에서 노부모 성별 차이가 나타난 것은 어머니나 시어머니를 부양할 경우 노모로부터 자녀양육이나 가사일 돌보기 같은 실제적인 도움과 심리적인 도움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2〉와 같이, 대체적으로 볼 때 노부모 부양에 따른 어려움은 아들이나 딸보다는 며느리가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보인다. 며느리는 특히 아들이나 딸보다 노부모를 부양하는데서 오는 심리적 부담으로 인한 어려움과 형제나 친척의 도움부족에서 오는 어려움, 그리고 자신이나 가족과 관련된 어려움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어머니를 모실 경우보다 규범적인 관계에 있는 시어머니를 모실 경우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이다(조병은·신화용, 1992). 그러나 노부모 부양에 충실하지 못하는데 대한 죄책감과 노부모의 건강 문제에서 오는 어려움에서는 부양자 관계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2. 부양지식 및 정보

부양지식 및 정보 영역에서 평균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자신의 노후계획(3.55점), 노인의 성격특성과 심리적 문제(3.44점), 노인과의 원만한 관계

〈표 2〉 부양에 따른 어려움 (부양자 관계별)

하 위 영역	집 단	평 균	표준편차	F	Scheffe
심리적 부담	아 들	2.60	1.12	34.11***	a
	며느리	3.61	1.06		b
	딸	2.96	1.25		a
경제적 부담	아 들	2.06	.95	17.62***	a
	며느리	2.76	1.13		b
	딸	2.38	1.02		ab
죄책감	아 들	2.81	1.00	1.72	
	며느리	2.93	.93		
	딸	3.10	1.04		
형제나 친척의 도움부족	아 들	2.55	1.21	11.63***	a
	며느리	3.14	1.24		b
	딸	2.50	1.17		a
노부모의 건강문제	아 들	2.81	.98	1.82	
	며느리	2.98	1.14		
	딸	3.13	1.17		
노부모의 성격문제	아 들	2.85	1.13	8.90***	a
	며느리	3.40	1.22		b
	딸	3.15	1.05		ab
노부모와의 갈등	아 들	2.53	1.09	7.75***	a
	며느리	3.01	1.11		b
	딸	2.74	1.03		ab
노부모 이해	아 들	2.68	.88	4.02*	a
	며느리	2.97	.93		b
	딸	2.87	1.08		ab
주거공간 부족	아 들	2.60	1.24	4.52*	a
	며느리	3.00	1.30		b
	딸	2.60	1.27		ab
나자신의 건강문제	아 들	1.81	.86	48.55***	a
	며느리	2.96	1.22		b
	딸	2.09	1.02		a
나자신의 시간과 여가	아 들	1.99	.94	41.88***	a
	며느리	3.10	1.26		b
	딸	2.19	1.12		a
가사역할의 과다	아 들	2.08	.97	35.74***	a
	며느리	3.08	1.23		b
	딸	2.21	1.01		a
가족단란시간 부족	아 들	2.26	1.03	31.32***	a
	며느리	3.17	1.23		b
	딸	2.19	1.02		a
배우자·자녀와의 관계문제	아 들	2.28	1.00	20.44***	a
	며느리	3.06	1.25		b
	딸	2.38	1.15		a

* P < .05 ** P < .01 *** P < .001

〈표 3〉 부양 지식 및 정보 (성별)

하 위 영역	부양자 성별				노부모 성별			
	집 단	평 균	표준편차	t	집 단	평 균	표준편차	t
노화와 노인질환	남	3.43	1.02	.33	남	3.50	.99	1.18
	여	3.39	1.00		여	3.37	1.01	
노인의 성격특성	남	3.38	.96	-.91	남	3.54	.98	1.19
	여	3.48	.97		여	3.41	.96	
가족대화과 갈등해결	남	3.38	.90	.51	남	3.42	.94	.87
	여	3.33	.93		여	3.33	.91	
노인과의 원만한 관계	남	3.44	.89	.04	남	3.50	.88	.97
	여	3.44	.85		여	3.42	.85	
건강관리와 여가생활	남	3.45	.74	1.60	남	3.27	.82	.15
	여	3.21	.86		여	3.26	.82	
나자신의 노후계획	남	3.56	.97	.15	남	3.55	.95	.05
	여	3.54	1.01		여	3.55	1.01	
심리적 부담감소	남	3.25	.94	.72	남	3.19	.93	-.11
	여	3.18	.96		여	3.21	.96	
부양역할 분담	남	2.98	1.05	1.64	남	3.03	1.06	1.84
	여	2.79	1.08		여	2.80	1.08	
노인복지와 노인관계법	남	2.73	1.05	2.14*	남	2.68	1.16	1.18
	여	2.48	1.05		여	2.54	1.01	
노인복지 프로그램	남	2.47	1.02	.44	남	2.50	1.12	.60
	여	2.42	1.08		여	2.42	1.04	

* P < .05 ** P < .01 *** P < .001

유지(3.44점) 순이었으며,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것은 노인복지 프로그램(2.44점), 그 다음이 노인 연금과 의료제도 및 관계법(2.58점)이었다. 이같이 노후계획에 대한 지식 및 정보수준의 인식이 높게 나타난 것은 현 중년세대의 노후계획에 대한 관심과 대비가 증가한다는 것을 반영하는 결과이다. 반면, 노인부양을 위해 실제적인 서비스와 자원을 이용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다.

〈표 3〉을 보면 노인 연금과 의료제도 및 노인관계법에서만 부양자녀의 성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여자보다 남자가 이 부분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 및 정보가 많다고 인식하였다. 그러나, 노부모의 성별로 보았을 때 부양지식 및 정보 영역에서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부양자 관계에 따라서도 노인 연금과 의료제도 및

노인관계법에서만 차이를 보여, 며느리보다 아들과 딸의 지식정도 인식이 높았다(표 4). 이는 친부모를 부양할 경우, 노부모의 노후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노인 연금과 의료제도 및 노인관계법에 더 많은 관심과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준다.

3. 부양지식 및 정보에 대한 필요성

부양지식 및 정보에 대한 필요성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필요성이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신체적 노화와 노인질환(4.19점), 자신의 노후계획(4.12점)의 점수가 높았고, 부양역할의 분담(3.64점)과 노인복지 프로그램(3.85점)에 관한 필요성 점수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이 노인복지 프로그램에 관한 필요성이 낮게 나타난 것은 노인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인

〈표 4〉 부양 지식 및 정보 (부양자 관계별)

하 위 영역	집 단	평 균	표준편차	F	Scheffe
노화와 노인질환	아 들	3.43	1.02	.12	
	며느리	3.38	.98		
	딸	3.44	1.11		
노인의 성격특성	아 들	3.38	.96	.53	
	며느리	3.49	.95		
	딸	3.42	1.05		
가족대화와 갈등해결	아 들	3.38	.90	.15	
	며느리	3.33	.94		
	딸	3.36	.90		
노인과의 원만한 관계	아 들	3.44	.89	.28	
	며느리	3.46	.84		
	딸	3.35	.93		
건강관리와 여가생활	아 들	3.35	.74	2.95	
	며느리	3.16	.84		
	딸	3.40	.90		
나자신의 노후계획	아 들	3.56	.97	.57	
	며느리	3.51	.95		
	딸	3.68	1.22		
심리적 부담 감소	아 들	3.25	.94	.85	
	며느리	3.21	.95		
	딸	3.04	.99		
부양 역할 분담	아 들	2.98	1.05	1.74	
	며느리	2.76	1.09		
	딸	2.91	1.02		
노인복지와 노인관계법	아 들	2.73	1.05	3.21*	
	며느리	2.44	.98		
	딸	2.67	1.26		
노인복지 프로그램	아 들	2.47	1.02	.11	
	며느리	2.43	1.05		
	딸	2.40	1.20		

* P < .05 ** P < .01 *** P < .00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노인복지 프로그램이 별로 다양하지 않고, 또한 그 실시의 초기 단계에 있어 제대로 실시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사회의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현실태를 반영하는 결과라 하겠다.

모든 영역에서 부양지식 및 정보 수준과는 달리

높은 필요성 수준을 보인다. 즉, 부양자들은 부양지식 및 정보 영역 전반에 걸쳐 지식 및 정보 수준은 낮았지만 필요성은 보다 높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영역별 필요성 점수중에서 노인 연금과 의료 및 관계법, 노인복지 프로그램에 관한 필요성 점수는 부양지식 및 정보 점수와 비교할 때 가

〈표 5〉 부양 지식 및 정보의 필요성 (성별)

하 위 영역	부양자 성별				노부모 성별			
	집 단	평 균	표준편차	t	집 단	평 균	표준편차	t
노화와 노인질환	남	4.16	.90	- .58	남	4.25	.80	.83
	여	4.21	.84		여	4.17	.89	
노인의 성격특성	남	4.05	.90	- .78	남	4.20	.75	1.47
	여	4.12	.81		여	4.05	.88	
가족대화 갈등해결	남	4.03	.95	- .99	남	4.18	.83	1.17
	여	4.13	.91		여	4.06	.96	
노인과의 원만한 관계	남	3.91	1.03	-1.49	남	3.95	1.07	- .64
	여	4.06	.91		여	4.02	.92	
건강관리와 여가생활	남	3.84	.99	-1.34	남	3.98	.93	.69
	여	3.98	.95		여	3.90	.98	
나자신의 노후계획	남	3.88	1.09	-3.77***	남	4.11	.91	- .14
	여	4.27	.87		여	4.12	1.01	
심리적 부담감소	남	3.78	1.05	-3.24**	남	4.06	.85	.98
	여	4.11	.86		여	3.95	.98	
부양역할 분담	남	3.42	1.24	-2.90**	남	3.85	1.02	2.17*
	여	3.78	1.08		여	3.56	1.20	
노인복지와 노인관계법	남	4.01	1.03	-1.25	남	4.22	.91	1.36
	여	4.15	1.03		여	4.05	1.07	
노인복지 프로그램	남	3.66	1.19	-2.52*	남	4.02	1.05	1.77
	여	3.97	1.13		여	3.78	1.20	

* P < .05 ** P < .01 *** P < .001

장 큰 차이를 보인다.

부양지식에 대한 필요성 영역 중에서는 부양역할의 분담에서 노부모가 남자인 경우 여자인 경우보다 그 필요성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노부모가 남자인 경우, 부양역할을 다른 형제나 가족과 분담하는 방법에 대한 지식 및 정보를 더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이다.

부양지식에 대한 필요성 중 부양에 대한 심리적 부담 줄이기, 부양역할을 형제나 가족과 분담하기, 자신을 위한 노후 계획, 그리고 노인복지 프로그램에서 부양자 성별(표 5) 그리고 부양자 관계별 차이(표 6)가 있었으며, 이 영역들에 대한 지식의 필요성을 남자보다 여자가, 아들보다는 며느리가 더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4. 부양 어려움과 부양지식 정도 및 부양지식에 대한 필요성간 관계

부양 어려움과 부양지식 정도, 그리고 부양지식에 대한 필요성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하였다. 노부모 부양에 따른 어려움은 부양지식에 대한 필요성과 정적 상관관계($r = .17, p < .05$)를 보였으나, 부양지식 정도와는 부적의 상관관계를($r = -.23, p < .01$) 보였다. 즉, 노부모를 부양하는데 따른 어려움이 클수록 부양지식 및 정보의 필요성을 높게, 그리고 실제로 부양자 자신이 알고 있는 부양지식 정도는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부양지식 정도와 부양지식 필요성 간에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 = .18, p < .01$). 이는

〈표 6〉 부양 지식 및 정보의 필요성 (부양자 관계별)

하 위 영역	집 단	평 균	표준편차	F	Scheffe	
노화와 노인질환	아 들	4.16	.90	.24		
	며느리	4.20	.81			
	딸	4.26	.94			
노인의 성격특성	아 들	4.05	.90	.69		
	며느리	4.09	.75			
	딸	4.22	1.01			
가족대화과 갈등해결	아 들	4.03	.95	.92		
	며느리	4.16	.87			
	딸	4.02	1.05			
노인과의 원만한 관계	아 들	3.91	1.03	1.23		
	며느리	4.08	.89			
	딸	4.00	1.02			
건강관리와 여가생활	아 들	3.84	.99	1.03		
	며느리	3.99	.93			
	딸	3.91	1.00			
나자신의 노후계획	아 들	3.89	1.09	7.30***	a	
	며느리	4.29	.83			b
	딸	4.19	1.04			ab
심리적 부담 감소	아 들	3.78	1.05	5.98**	a	
	며느리	4.15	.82			b
	딸	3.95	.99			ab
부양 역할 분담	아 들	3.42	1.24	5.20**	a	
	며느리	3.83	1.09			b
	딸	3.57	1.05			ab
노인복지와 노인관계법	아 들	4.01	1.03	.83		
	며느리	4.14	1.02			
	딸	4.20	1.07			
노인복지 프로그램	아 들	3.66	1.19	3.62*	a	
	며느리	4.01	1.09			b
	딸	3.83	1.27			ab

* P < .05 ** P < .01 *** P < .001

실제로 알고 있는 부양지식 정도가 높을수록 부양지식에 대한 필요성도 높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제시하는 결과이다.

5. 부양 어려움과 부양지식 정도 및 부양지식에 대한 필요성의 요인

부양에 대한 어려움, 부양지식 정도와 부양지식의

필요성에 기여하는 각 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하였다. 노부모와 관련된 변수로 노부모의 연령과 건강 정도를, 그리고 부양자와 관련된 변수로 부양자의 연령과 교육수준을 포함하였으며, 또한 노부모에 대한 친밀감이 주는 영향을 보고자 하였다.

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표 7〉에 제시되었다. 부양

〈표 7〉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부양 어려움(β)			부양지식 및 정보(β)			지식 및 정보 필요성(β)		
노부모 연령	.01	.08	.06	.01	-.01	.00	-.00	.02	.03
노부모 건강	-.28***	-.28***	-.22***	.08	.05	.04	.03	.00	.01
연령		-.14*	-.14*		.05	.05		-.06	-.06
교육수준		-.06	-.02		.15*	.13*		.15**	.15**
친밀감			-.48***			.19***			-.09
R ² 변화		.02	.22		.02	.03		.02	.01
R ²	.08	.10	.32	.01	.03	.06	.00	.02	.03

* P < .05 ** P < .01 *** P < .001

어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노부모 관련변수 중에서 노부모의 건강, 부양자 관련변수 중 부양자의 연령, 그리고 노부모에 대한 친밀감이었다.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약 32%이며, 이 중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변수는 노부모에 대한 친밀감으로 부양에 대한 어려움을 22% 정도 설명하고 있다. 부양하고 있는 노부모의 건강이 좋을수록, 부양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또한 노부모에게 느끼는 친밀감이 높을수록 노부모 부양에 대한 어려움을 적게 느끼고 있었다.

즉,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쇠퇴로 인하여 노인들은 더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며, 이는 부양자의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것이다(Johnson, 1983). 그리고 이 결과는 연령이 낮은 기혼자들이 노부모 부양에서 더 큰 부담 및 긴장을 경험한다는 연구결과(박경란, 1993; Montgomery, Gonyea, & Hooyman, 1985; Umberson, 1992)와 일치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노부모와 자녀간 갈등이 부양자의 긴장이나 부양부담에 영향을 주며(Sheehan & Nuttall, 1988; Strawbridge & Wallhagen, 1991), 세대간 관계의 질이 낮을수록 부양 후 부정적 감정이 커진다는(송현애, 1986) 선행연구의 결과를 입증하는 것이다.

부양지식은 부양자의 교육수준과 노부모에 대한 친밀감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즉, 부양자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노부모에 대한 친밀감이 높을수록 부양지식이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양자의 교육수준은 부양지식에 대한 필요성에 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부양자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양지식에 대한 필요성을 높게 느끼고 있었다. 이들 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부양지식과 이에 대한 필요성의 변량은 각각 6%와 3%로, 비교적 낮은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6. 노인부양에 대한 교육요구

노인부양교육에 대한 부양자의 요구를 파악하는 것은 노인부양가족을 위한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해 중요하다. 〈표 8〉을 보면, 부양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의 84%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교육의 목적으로는 가족간 불화를 방지하고 화목하게 살기 위하여가 27.1%, 노인 부양의 맡은 바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가 24.7%, 그리고 노인부양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하여가 20.9%로 나타났다. 즉, 단순히 노인부양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얻는 것보다는 좀 더 나아가 부양에 관련된 모든 가족원들의 화합을 도모하고 가족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인부양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음을 알수 있다.

노인부양에 대한 교육은 사회복지기관(41.7%)에서 담당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사회교육단체(26.0%), 가족문제 및 상담 연구소(16.3%) 순으로 나타났다.

노인부양에 대한 교육은 주중 낮 시간에(48.2%) 실시하기를 가장 많이 원했고, 주말에(25.9%), 주중

〈표 8〉 교육 요구

		남	여	전체	χ^2
교육 경험	유	7(4.9)	18(8.0)	25(6.8)	1.29
	무	135(95.1)	207(92.0)	342(93.2)	
교육의 필요성	반드시 필요	37(25.7)	60(26.1)	97(25.9)	1.39
	필요	85(59.0)	132(57.4)	217(58.0)	
	별로 필요없음	19(13.2)	36(15.7)	55(14.7)	
	전혀 필요없음	3(2.1)	2(0.9)	5(1.3)	
교육 참여 의사	꼭 참석	14(9.7)	44(19.1)	58(15.5)	7.13
	참석	89(61.8)	124(53.9)	213(57.0)	
	별로 참석의사없음	36(25.0)	58(25.2)	94(25.1)	
	전혀 참석의사없음	5(3.5)	4(1.7)	9(2.4)	
교육 참여	혼자 참석	15(10.6)	39(17.6)	54(14.9)	43.23***
	부부가 참석	94(66.7)	83(37.4)	177(48.8)	
	형제와 참석	24(17.0)	41(18.5)	65(17.9)	
	친구와 참석	3(2.1)	51(23.0)	54(14.9)	
	기타	5(3.5)	8(3.6)	13(3.6)	
교육 목적	나의 자질향상	22(15.4)	55(24.3)	77(20.9)	14.04**
	부양책임때문	35(24.5)	56(24.8)	91(24.7)	
	지식과 정보획득	33(23.1)	29(12.8)	62(16.8)	
	가족간 화목때문	44(30.8)	56(24.8)	100(27.1)	
	부양에 따른 문제해결	9(6.3)	30(13.3)	39(10.6)	
교육 담당 기관	사회복지기관	62(43.4)	92(40.7)	154(41.7)	7.77
	종교단체	10(7.0)	29(12.8)	39(10.6)	
	대학	4(2.8)	10(4.4)	14(3.8)	
	사회교육단체	43(30.1)	53(23.5)	96(26.0)	
	가족상담연구소	20(14.0)	40(17.7)	60(16.3)	
	기타	4(2.8)	2(0.9)	6(1.6)	
교육 실시 시간	주중 낮시간	37(25.9)	142(62.3)	179(48.2)	47.15***
	주중 저녁	48(33.6)	37(16.2)	85(22.9)	
	주말	53(37.1)	43(18.9)	96(25.9)	
	기타	5(3.5)	6(2.6)	11(3.0)	
교육 방법	강의	15(10.5)	32(14.2)	47(12.7)	3.53
	강의와 집단토론	72(50.3)	101(44.7)	173(46.9)	
	집단토론	15(10.5)	16(7.1)	31(8.4)	
	상담	41(28.7)	77(34.1)	118(32.0)	

* P < .05 ** P < .01 *** P < .001

저녁에(22.9%)가 그 다음 순으로 나타났다. 원하는 교육 실시시간은 성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양자가 남성인 경우 주말에 교육을 실시하기

를 원하는 경향이 높았는데 비해, 여성인 경우에는 주중 낮 시간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 노인부양에 대한 교육에 참석할 경우, '부부가 함

게 참석한다'(48.8%)는 응답이 거의 절반이었고 '다른 형제나 친척과 함께 참석한다'가 17.9%, 그리고 '혼자 참석한다'와 '친구나 동료와 함께 참석한다'는 응답이 각각 14.9%를 차지하였다.

성별로는 남성(66.7%)이 여성(37.4%)보다 부부 함께 참석하기를 원하는 경향이 더 높았고, 남성의 경우 그 다음이 '형제나 친척과 함께', 그리고 '혼자 참석한다' 순이었다. 여성의 경우 그 다음이 '친구나 동료와 함께', '형제나 친척과 함께', '혼자 참석한다' 순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통해, 남성 부양자는 여성 부양자에 비해 노부모 부양역할을 부양자녀 자신만의 일이 아닌 부부 공동의 일로 보는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 부양자에서는 이런 경향이 적으며, 대신 노부모 부양을 혼자 일로 생각하는 경향이 남성에 비해 높다. 이는 노인에게 부양을 제공하는 부양자는 주로 여성이며, 아들이 노부모를 부양할 경우에도 며느리가 노부모 부양의 실제적인 역할을 주로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교육방법에 대한 요구는 강의와 집단토론 병행이 46.9%로 가장 많았고, 상담 형태를 원하는 경우는 32.0%, 강의 형태는 12.7%, 그리고 토론 형태는 8.4%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앞에서 살펴 본 노인부양가족을 위한 가족생활교육의 유형 중에서 부양자들은 집단교육과 지지집단의 형태를 합한 유형을 가장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노인부양은 이제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그 사회적인 의미와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노인부양가족이 겪는 어려움을 인정하고, 노인부양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갈등을 완화시키며 또한 과중한 부담없이 노인부양을 계속할 수 있도록 보다 현실적인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노인부양가족의 문제, 어려움 및 요구를 실증적으로 파악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노인부양가족을 위한 가족생활교육에 대한 현황과 노인부양의 문제점 및 교육요구 조사를 바탕으로 노인부양가족을 대상으로 하

는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하여, 노인부양가족을 위한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그 교육구성과 교육내용을 중심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1. 노인부양가족을 위한 가족생활교육을 구성하기 위해서 그 대상, 방법, 목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첫째, 노인부양가족을 위한 가족생활교육은 그 교육대상에 있어서 부양자 부부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노인부양 역할은 주로 여성이 맡고 있으며, 또한 본 연구의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성들은 남성 부양자보다 부양역할에서 오는 어려움을 더 많이 경험한다. 노인부양가족에서 부부는 함께 부양역할을 공유해야 하며, 따라서 노인부양가족을 위한 가족생활교육도 부양역할을 맡은 어느 한 성인자녀뿐만 아니라 부부를 같이 대상으로 해야 한다.

둘째, 노인부양가족을 위한 가족생활교육의 교육방법으로서 노부모 부양자들은 강의 형태와 집단토론 형태를 병행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노인부양과 관련된 여러가지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강의 형태를, 그리고 노인부양자 공통의 문제와 관심을 서로 얘기하고 나누도록 하는 것으로서는 집단토론식 형태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노부모 부양 문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볼 수 있고, 부양자나 노부모의 문제, 감정 및 태도에 대한 통찰력을 얻으며, 또한 부양자들은 서로 정서적인 지지를 주고 받을 수 있게 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살펴본 부양에 따른 어려움, 부양지식 및 정보, 그리고 이에 대한 필요성은 부양자의 성별, 부양자 관계, 노부모의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노인부양가족에 있어 부양상황과 경험의 다양성이 존재함을 인정하고, 노인부양가족을 위한 가족생활교육은 대상자들의 욕구와 특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넷째, 노인부양가족을 위한 가족생활교육의 목적은 노인부양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노인부양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인식을 갖게 하고 부양생활에 대한 적응력을 길러, 노인

부양가족의 가족관계와 가족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2. 노인부양가족을 위한 가족생활교육은 다음의 교육내용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 먼저, 부양에 따른 어려움을 보면, 노부모 부양자들은 노부모의 성격문제, 건강문제, 부양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느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노인부양가족을 위한 가족생활교육은 노년기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변화과정에 대한 이해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으며, 부양자들의 부양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완화시키는데 필요한 도움을 주어야 한다. 즉, 성인 자녀의 노부모 부양은 노년기에 대한 이해, 그리고 부양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둘째, 노인부양의 역할과 책임은 주로 중년세대가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중년세대는 노부모를 부양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노화과정을 경험하고 있고 나름대로 자신의 노후를 위하여 준비해야 하는 시기에 있게 된다. 즉, 중년세대는 노부모 세대와 자신의 자녀세대에 대한 책임과 동시에 자신만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므로 노인부양을 위한 교육은 노부모는 물론 부양자 자신의 노화과정에 대처하는 방법을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노부모를 돌보는 책임은 노부모와 동거하는 자녀 뿐만 아니라 다른 자녀들도 모두 함께 공유하여야 한다. 성인자녀들 상호간에 노인부양 역할분담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서로 이해하고 협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한, 역할분담에 대한 상반된 기대로서 많은 갈등과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노인부양가족을 위한 교육에서는 노인부양이 성인자녀들의 공유된 책임이 될 수 있도록, 자녀들이 노부모를 부양하는 역할을 나누고 서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논의할 것이 요구된다.

넷째, 부양자가 노부모에게 느끼는 친밀감은 부양에서 오는 어려움, 부양에 대한 지식정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부모와 부양자녀간 친밀감이나 정서적 관계의 강도가 노인을 부양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부양에 대한 노부모의 욕구와 더불어 노인부양에 대한 보다 현실적

인 이해는 노부모와의 관계도 증진시킬 수 있다.

다섯째, 노인부양가족은 특히 노인 연금과 의료 및 관계법, 노인복지 프로그램에 관해 알고 있는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대한 지식과 정보의 필요성은 높게 느끼고 있었다. 이는 노인의 건강, 경제, 여가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문제와, 노인부양가족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실제적인 서비스에 관한 정보에 접할 기회는 제한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관심과 요구도는 높다는 것을 제시한다. 노인부양가족에게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법 또는 정책에 대한 현황, 그리고 노인복지를 위한 여러가지 서비스와 프로그램, 시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이 제시해 본 노인부양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생활교육을 통해 노인부양가족의 부양에 따른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그들의 가족관계를 향상시키며, 노인에게 더 나은 부양을 제공하도록 도와주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노인부양가족의 어려움 및 이를 완화시키기 위한 노인부양교육 요구를 파악해서 노인부양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방향 제시를 시도해 보았다는 데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앞으로 노인부양가족을 위한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의 내용과 교육요구에 대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다양하고 실제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시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김태현(1981). 한국에 있어서의 노인부양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 박경란(1993). 만며느리가 인지하는 시모 부양 긴장: 결정요인 및 매개변인고찰. 한국노년학, 13, 75-89.
- 3) 서병숙(1989). 노후적응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4) 송현애(1986). 부양을 중심으로 한 노모-성인자녀관계에 대한 조사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 논문.
- 5) 신호식 · 서병숙(1992). 노부모와 성인자녀간의 결속도가 노부모의 심리적 손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12, 99-108.
 - 6) 오윤자(1992).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II).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0, 209-229.
 - 7) 옥선화(1989). 현대 한국인의 가족주의 가치관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8) 우미경 · 서병숙(1989). 노후 부양의식에 관한 연구: 서울시에 거주하는 기혼자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한국생활과학연구*, 7, 137-160.
 - 9) 유영주 · 오윤자(1990).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I). *한국가정관리학회지*, 8, 49-68.
 - 10) 이영자 · 김태현(1992). 노인부양자 유형에 따른 스트레스 인지와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할머니와 며느리의 비교 연구. *한국노년학*, 12, 1-18.
 - 11) 조병은 · 신화용(1992). 사회교환적 관점에서 본 맞벌이 가족의 성인 딸/며느리와 노모의 관계. *한국노년학*, 12, 83-98.
 - 12) Allan, G. (1988). Kinship, responsibility and care for elderly people. *Aging and Society*, 8, 249-268.
 - 13) Arcus, M. (1987). A framework for life-span family education. *Family Relations*, 36, 5-10.
 - 14) Brody, E.(1985). Parent care as a normative stress. *The Gerontologist*, 25, 19-29.
 - 15) Cantor, M.H.(1983). Strain among caregivers: A study of experience in the United states. *The Gerontologist*, 23, 597-604.
 - 16) Cromwell, R.E., & Thomas, V.L. (1976). Developing resources for family potential: A family action model, *Family Coordinator*, 25, 13-20.
 - 17) George, L.K., & Gwyther, L.P. (1986). Caregiver well-being: A multidimensional examination of family caregivers of demented adults. *The Gerontologist*, 26, 253-259.
 - 18) Horowitz, A., & Shindelman, L. (1983). Reciprocity and affection: Past influences on current caregiving.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ork*, 5, 5-20.
 - 19) Johnson, C. (1983). Dyadic family relations and social supports. *The Gerontologist*, 23, 377-383.
 - 20) Kaplan, B.H. (1979). An overview of interventions to meet the needs of aging parents and their families. In P.K. Ragan (Ed.), *Aging parents*(pp. 190-205). The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Press.
 - 21) Litwak, E. (1981). Theoretical basis for practice. In R. Dobrof & E. Litwak (Eds.), *Maintenance of family ties of long-term care patients: Theory and practice*. Washing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DHHS Publication NO. (ADM) 81-400.
 - 22) Montgomery, R.J.V., Gonyea, J.G., & Hooyman, N.R.(1985). Caregiving and the experience of subjective and objective burden. *Family Relations*, 34, 19-26.
 - 23) Poulshock, S.W., & Deimling, G. (1984). Families caring for elders in residence: Issues in the measurement of burden, *Journal of Gerontology*, 39, 230-239.
 - 24) Scharlach, A.E. (1987). Relieving feelings of strain among women with elderly mothers. *Psychology and Aging*, 2, 9-13.
 - 25) Sheehan, N.W., & Nuttall, P. (1988). Conflict, emotion, and personal strain among family caregivers. *Family Relations*, 37, 92-98.
 - 26) Strawbridge, W.J., & Wallhagen, M.I. (1991). Impact of family conflict on adult child caregivers. *The Gerontologist*, 31, 770-777.
 - 27) Umberson, D. (1992). Relationships between adult children and their parents: psychological consequences of both generation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4, 664-674.